목장 모임 인도자가이드

Life-Changing Small Group

2022. 4. 10. 주일설교 "하나님의 희생" (마태복음 16:21-23)

DONGAN CHURCH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의 방법(일) 보다는 사람의 방법(일)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사람의 방법)시켰습니다. 내 삶에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히 9:22, 마 16:23)

☞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면,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서 유대인들에게 황금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류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 히9:22 롬1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 마16: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꼈던 마음들을 나누어 봅시다. (요 12:23-24, 새 찬송가 143장)

☞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간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잠시라도 생각해 봅시다.

- 요12:23~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새 찬송가 143장

  1.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2.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크셔라
  3.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4.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3. 1887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습을 3가지로 봤습니다. 축첩, 음주, 금연이었습니다. 당시 이걸 금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멋있는 그리스도인,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